

#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도 대출 '간간'

### 가계부채관리감담회 개최...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DSR, 주담대·마이뉴스통장 등 모든 대출 원리금 포함 한도 산정

금융당국이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시행 운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감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차원에서 먼저 은행권에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뉴스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도입되면 대출 조건 등이 현행보다 더 간간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출 규제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도 유도한다. 적격대출 공급을 기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권별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

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 등도 나선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 목표를 상향한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금리 인상시 이자상황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이 유지되며 인하시에는 반대로 적용된다. 일정 기간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오는 7월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계차주 대상 금융권 공동 세일엔리스백(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운영, 채무자 부도 발생시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인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 우선 도입 후 민간은행 확산을 유도한다.

뉴시스

## 삼성 갤럭시S9시리즈, 美 소비자 사로잡다

### 컨슈머리포트 평가 1·2위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와 갤럭시S9플러스 시리즈가 미국 대표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갤럭시S8 시리즈를 합치면 삼성전자가 제품이 Top 5위 모델을 독차지하면서, 애플이 6~8위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갤럭시S9 출시 이후 최신 스마트폰을 평가한 결과 삼성 갤럭시S9, 갤럭시S9플러스가 각각 81점을 받아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갤럭시S8은 80점으로 3위였고 갤럭시S8 액티브(79점), 갤럭시S8 플러스(79점)이 그 뒤를 이었다.

컨슈머리포트는 갤럭시S9, 플러스가 다시 한 번 스마트폰 전반적인 성능의 기준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구성, 빠른 프로세서, 스테레오 스피커와 두 가지 생체인식을 결합한 '인텔리전트 스캔' 등 편리한 보안 기능을 감점으로 꼽았다.

내구성에서도 갤럭시S9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스마트폰 낙하 실험에서 갤럭시S8시리즈 디스플레이는 50번 만에 심하게 고장나 작동을 멈췄지만 갤럭시S9는 100회 테스트에도 작은 흠집만 났다고 컨슈머리포트는 설명했다.

한편, 애플 제품은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이 79점으로 6~7위였고 10주년 기념작 아이폰X는 78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이어 9위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10위에는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10프로가 차지했다.

뉴시스

## '4월 22일' 태어난 신생아 '나만의 우표' 신청하세요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오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에 태어난 광주·전남지역 모든 신생아에게 '나만의 우표'를 선물한다고 16일 밝혔다.

'나만의 우표'란 고객이 원하는 사진 등으로 제작하는 맞춤형 우표로서 소중한 순간을 추억하거나 기념 로고를 넣어 홍보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또한, 우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지에 붙여서 사용 할 수도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우체국의 미래고객이 될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기획되었으며, 4월 22일 출생하는 신생아 모두가 증정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22일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 또는 가족이 신청서와 아이 사진 파일을 출산 병원을 통하거나 가까운 광주·전남지역 우체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은홍 기자



### 삼성 김치플러스 세계절 출시

삼성전자가 16일 다양한 식품을 계절에 상관 없이 연중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플러스 세계절'을 출시했다. 김치플러스 세계절은 열대과일에서 뿌리 채소, 외인까지 식품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관이 가능한 다용도 프리미엄 김치냉장고다.

삼성전자가 16일 다양한 식품을 계절에 상관 없이 연중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플러스 세계절'을 출시했다. 김치플러스 세계절은 열대과일에서 뿌리 채소, 외인까지 식품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관이 가능한 다용도 프리미엄 김치냉장고다.

## 40~80대 부모 절반 "‘삼시 세끼’ 못해"

### "귀찮고 소화 안 돼서"

부모들의 절반가량은 하루에 '세끼'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있어 고령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8일 매일유업 사코페니아연구소가 최근 40~80대 부모를 둔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하루 세 끼를 챙겨 드신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끼니를 거르는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귀찮아서' (26%), '소화가 안 돼서' (22%), '혼자 먹기 싫어서' (15%)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모가 한 명의 사망으로 혼자 지내는 경우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신다'고 답한 비율이 30%를 넘었다.

나이가 들면 챙겨야 하는 영양소로는 단백질(40%), 칼슘(34%)을 주로 꼽았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부모님이 챙겨먹는 식품으로 육류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두부(15%), 계란(7%), 두유(6%), 우유(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타민, 과일, 나물과 같이 단백질이 전혀 없는 식품을 섭취하

거나 어떤 식품을 주로 드시는지 모르는 경우도 20% 정도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시니어 계층의 주요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코페니아(Sarcopenia)'를 연구·개발(R&D)하기 위해 출범한 사코페니아연구소가 매일아이닷컴에서 40대에서 80대까지 부모를 둔 787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3월 6일 진행했다.

사코페니아는 팔과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이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으로 근육이란 뜻의 사코(sarco)와 부족 및 감소를 의미하는 페니아(penia)의 합성어다. 설문대상 중 '사코페니아나 근감소증'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3%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기 매일유업 사코페니아연구소장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식사 습관과 영양 상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모님들의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사코페니아(근감소증)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식습관과 운동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 국내 자영업 폐업률 2.5%, 창업률 앞질러

지난해 하반기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생겨나는 업소보다 사라지는 업소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스포츠 업종은 창업률이 0.6%로 저조한 반면 폐업률이 1.9%로 집계돼 창·폐업률간 격차가 1.3%로 두드러졌다. 비인기 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창업률이 폐업률보다 앞서서 업종은 없었고 유일하게 소매 업종만 창업률과 폐업률이 2.4%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을 창업하지만 시장에 안착하는 업소보다 문을 닫는 업소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스포츠 업종은 창업률이 0.6%로 저조한 반면 폐업률이 1.9%로 집계돼 창·폐업률간 격차가 1.3%로 두드러졌다. 비인기 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창업률이 폐업률보다 앞서서 업종은 없었고 유일하게 소매 업종만 창업률과 폐업률이 2.4%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